

김시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우승

한국인 역대 2위·18번째 우승

PGA 투어 통산 3승째 달성해



김시우가 24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웨스트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미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시우는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김시우(26)가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총상금 670만달러)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김시우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스타디움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 8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5타를 친 김시우는 22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시즌 첫 우승을 올렸다.

김시우는 이날 정교한 쇼트게임과 안정감 있는 퍼트를 앞세워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시즌일관 자신의 경기 감각을 유지한 것이 돋보였다.

2016년 8월 윈덤 챔피언십, 2017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시우는 약 3년 8개월 만에 PGA 투어 통산 3승째를 달성했다.

김시우는 최경주(8승)에 이어 한국인 PGA 투어 최다승 2위에 올라섰다. 또한 18번째 한국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우승상금으로 120만6000달러(한화 약 13억3000만원)를 받는다.

김시우는 경기 후 "내 자신에게 큰 의미를 주는 우승이다. 행복하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날 4, 5번홀에서 연속 버디를

남은 김시우는 7, 8번홀에서도 연이어 버디를 잡아내 상위권을 유지했다.

김시우는 10, 11, 16번홀에서 버디를 기록한 후 17번홀에서 감각적인 롱 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김시우는 마지막 18번홀을 파로 마무리해 경기를 끝냈다.

캔틀레이는 무려 11언더파 61타를 치며 김시우를 추격했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다.

캐메론 데이비스(호주)는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로 3위에 올랐고, 토니 피나우(미국)는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해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안병훈(30)은 마지막 날 버디 4개, 보기 1개를 쳐 3언더파 69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4타를 기록한 안병훈은 공동 8위에 올랐다.

임성재(23)는 최종합계 13언더파 275타로 공동 12위에 자리했고, 이경훈(30)은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32위에 머물렀다.

한편, 재미교포 더그 김은 15언더파 273타를 쳐 공동 5위로 선전했다.

뉴스



전인지가 24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 최종 라운드 4번 홀에서 티샷하고 있다. 전인지는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확신이 생긴 한 주” 전인지 ‘부활 예고’

전인지가 긴 침묵을 깨고 부활을 알렸다. 스스로 과정과 결과에 만족감을 표할 정도로 이상적인 한 주를 보냈다.

전인지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도(파71)에서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 개막전인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 달러)에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단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15차례 대회에서 우승 없이 두 차례 톱10에 그쳤던 전인지는 새 시즌 첫 대회부터 상위권에 자리했다. 전인지가 톱5에 든 것은 2019년 10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동 4위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전인지는 대회 내내 기복없는 플레이를 선보였다. 지난해 부진을 떨치기

위해 겨우내 굵은 땀을 쏟아낸 것이 결실을 맺었다.

전인지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경기를 4일 동안 했던 것 같다. 나에겐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한 주”라고 돌아봤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전인지는 “모든 것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다.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한 주였기에 벌써부터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새 시즌 LPGA 투어의 두 번째 대회는 다음달 25일 개막하는 게인브릿지 챔피언십이다. 전인지는 일단 한국으로 돌아와 자가격리 검역을 취할 생각이다.

전인지는 “집에 가면 내 침대 위에 잠을 자는 게 제일 행복하다. 가만 바로 씻고 침대로 뛰어들 것 같다”고 웃었다.

뉴스

“가을야구 선사” 30홈런-100타점 KIA 터커, 영양가 논란 지운다

KIA 타이거즈 프레스턴 터커(31)가 가을야구를 약속했다.

터커는 2020시즌 최고의 활약을 했다. 142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6리, 32홈런, 113타점, 100득점을 올렸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3할-30홈런-100타점-100득점을 기록한 타자가 되었다. 물론 역대 외인 최초의 기록이었다. OPS(.955)도 수준급이었다.

겨우내 벌크업을 통해 플로리다 스프링캠프에 몸짱으로 나타났다. “홈런 등 장타를 원하는 것 같아 파워를 키웠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시즌에서 파워를 입증했다. 그만큼 구단이 무엇을 원하지를 알고 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개막과 함께 뜨거운 화력을 쏟아냈고 외국인 타자 가운데 최상급의 성적을 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미치근한 점도 있었다. 팀에서 가을야구를 위해 가장 활약이 필요할 때 부진했던 것이다. 7월 타율 2할4푼7리, 5홈런, 15타점

으로 다소 주춤했다. 이어 치열한 5강 싸움을 했던 9월 20일 29번째 홈런을 때려낸 이후 침묵이 길었다. 21경기에서 홈런이 없었고 단 7타점에 그쳤다. 에이스 애런 브룩스가 없는 가운데 터커의 침묵이 길어졌고 결국 5강 탈락으로 이어졌다.

22경기만에 홈런을 때렸다. 이후 멀티홈런과 타점을 쌓으며 타격감을 회복했으나 가을기차는 떠난 이후였다. 때문에 터커에 대해 영양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득점권 타율은 딱 3할이었다.

구단은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훌륭한 성적을 올렸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총액 105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동시에 100만 달러 이상을 안겨준 것은 가을야구를 이끌어달라는 것이었다.

입국후 자가 격리 중인 터커는 2021시즌 목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든 기록의 수치가 지난해보다 향상되는 것이다. 그 동안은 어떤 부분의



성적만 두드러졌다. 하지만 올 해는 모든 부분의 성적이 고루 좋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찬스에 보다 강한 타자가 되겠다는 의지였다.

동시에 “팀이 포스트시즌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다. 내 성격이 고루 좋아진다면 팀도 포스트시즌 진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가을야구를 약속했다. 특히 올해는 1루수로도 변신한다.

윌리엄스 감독의 경기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 외야와 1루를 넘나들 것으로 보인다. 외야진의 수비 강화와 공격력 강화를 위한 처방이었다.

터커는 “대학 2학년까지 1루가 주 포지션이었다. 여쭙하지 않다. 콧위크와 위치 선정에 신경을 써 준비중이다. 스프링캠프에선 수비와 타격을 비슷한 비중으로 두고 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미희기자

손흥민, 2020 AFC 국제선수상 수상

개인 통산 4번째 수상...이강인 7위

여자 부문에선 지소연 5위·장슬기 6위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지난해 최고의 시즌을 보낸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이 이번엔 2020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국제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AFC는 24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최우수 국제선수 팬 투표 결과 손흥민이 25,033표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AFC 국제선수상은 아시아가 아닌 해외 프로팀에서 뛰는 아시아 출신 선수에게 주는 상이다. 팬 투표가 반영되며, 소속팀과 자국 대표팀 활약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AFC는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과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22골을 넣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이 AFC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받은 건 2015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통산 4번째다.

토트넘도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소식을 전하며 손흥민의 수상을 기뻐했다.

2020년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이다. 2019~2020시즌 토트넘 올해

의 선수상을 거머쥐었고, 지난해 10월엔 개인 통산 세 번째 EPL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세계 최고 무대인 EPL에서 토트넘을 대표하고, 한 달간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우뚝 섰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아시아 선수로는 두 번째로 국제축구연맹(FIFA) 푸스카스상을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다.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활약에 중국도 엄지를 세웠다. 지난 4일 중국 타이탄스포츠는 손흥민을 2020 아시아인 골든 글로브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했다. 4년 연속이자 역대 최다 수상이다.

2013년 제정된 이 상은 타이탄스포츠가 프랑스 매체 프랑스풋볼의 발흥 도트에 착안해 만들었다. AFC 소속 국가나 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한편 국제 부문 2위는 이란의 테디 타레미(FC포르투·19.34점)이다. 한국 선수 중엔 이강인(발렌시아)이 7위(0.74점)에 올랐다. 여자 부문에선 지소연(헬싱키 위민)이 5위, 장슬기(인천 현대제철)가 6위에 자리했다. 최우수 여자 선수는 엘리 카펜터(올림피크 리옹)가 차지했다.

뉴스

일본인 86% “도쿄올림픽, 연기 취소 해야” 부정적 입장 나타내

올해 개최 예정인 일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취소론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개최 여론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발표된 아시아 신문의 여론조사(23~24일) 결과 오는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재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51%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18% 포인트나 올랐다.

“중지(취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지난 조사 대비 3% 포인트 상승했다.

총 86%가 예정대로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올해 여름에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로 지난 조사 대비 19% 포인트 떨어졌다.

뉴스

지난해 12월 조사에서는 같은 질문에 대한 3가지 응답 비율이 거의 같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신중론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앞서 지난 21일영국 더 타임스는 의견을 요구한 일본 여당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매체는 일본 정부가 2032년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해당 보도를 부정하고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취소론은 확산하고 있다.

득점 후 부상 동료 유니폼 든 황의조 “오타비오 위한 승리”



득점 후 부상 동료 유니폼을 든 황의조. (캡처=보르도 소셜미디어)

유럽 무대 진출 후 처음 멀티골을 터트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 리그) 지롱댕 보르도의 골잡이 황의조(29)가 동료를 위한 감동 세리머니로 주목을 받았다.

황의조는 24일(한국시간) 프랑스 보르도의 스타드 마트위 아르타티크

뉴스